

군산시간여행축제, 최우수 선정

4년 연속 쾌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 시동

군산시는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최우수 축제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도비 7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라북도 산하 지역축제육성위원회는 전북 14개 시군 대표축제의 기획, 콘텐츠 운영, 발전역량, 효과 등 축제 전반을 심사해 전북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선정했다.

2013년 처음 시작해 10주년을 맞은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원도심서 대규모 도심 거리형 축제를 펼쳐 보였다.

우리들의 시간여행, 군산을 슬로건으로 '모던걸&모던보이'의 근대의상 등 다양한 근대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근대 이전의 과거로, 근현대를 지나 미래로 라는 '시간여행 테마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축제의 향연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간여행축제가 4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것은 시간여행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및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강화하여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보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시농업 축제인 군산공당보리축제도 전라북도 시·군 작은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박현경 익산 홍보대사... 고향사랑 '듬뿍'

성금기탁·릴레이 캠페인 전개

익산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프로골퍼 박현경 씨가 따뜻한 고향 사랑 마음을 전달해 화제다.

박 선수는 4일 익산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고향 사랑에 동참했다. 이로써 시 홍보대사 가운데 1호 고향사랑기부자가 탄생하게 됐다.

이날 기탁식은 박현경 선수 아버지와 팬클럽 회원 등이 동참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박 선수는 고향사랑기부금 기탁함에 따라 익산시가 마련한 소정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열고 특산물인 쌀과 고구마, 각종 선물세트와 체험권 등 12개 품목



익산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프로골퍼 박현경 씨가 따뜻한 고향 사랑 마음을 전달해 화제다.

을 선정한 바 있다.

박현경 선수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익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多e로움, 올해도 전국 최대 혜택... 20% 지속

전국 최고의 지역화폐로 인정받은 익산다e로움이 올해도 최대 규모의 혜택을 이어간다.

특히 다e로움을 정책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4일 시는 코로나19 사태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e로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 한도 100만원 내에서 최대 20%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충진 인센티브와 다음달 20일 지급되는 소비촉진지원금 등 혜택 방식도 동일하다. 발행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한 5,500억원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반기부터 다e로움을 시가 추진 중인 정책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인다.

소비촉진지원금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지역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인구정책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국내 최초 충전식 선불카드 출시된 익산 다e로움은 발행 첫 해인 지난 2020년 1,829억원, 2021년 3,504억원, 지난해 5,738억원이 발행되었다. 지난해 10월 누적발행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지역경제 지킴이로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익산다e로움 이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될 것"

군산시,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군산시는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모급여는 작년까지만 시행했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라도 기존대로 양육수당 대상에 해당해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확대 개편된 사

향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도 월 보육료 바우처 5만4천원을 제외하고 월 18만6천원 차액을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만 1세 아동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영아종합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해 이용시간 등을 고려, 동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건설 아동청소년과장은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서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부모급여로 양육 부담 확 줄여

익산시,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부모에 월 35~70만원 지원

익산시가 부모급여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확 줄인다.

4일 시는 올해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 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존 가정양육하는 만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통합돼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보호자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18만6천원)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코로나19 사망 60대 이상 95% 넘어

군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중 95%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군산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118명이다.

지난 2021년 2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116명이 사망, 올해 사망자는 없다. 이중 남성은 48명, 여성이 70명이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1명, 50대 4명, 60대 12명, 70대 23명, 80대 51명, 90대 이상 27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50대 1명, 60대 10명, 70대 9명, 80대 22명, 90대 이상 6명

이었으며 여성은 40대 1명, 50대 3명, 60대 2명, 70대 14명, 80대 29명, 90대 이상 27명이다.

남성은 80대에서 사망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도 8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산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95% 이상이 60대였으며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었다"면서 "백신 접종을 꼭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개선 추진

군산시는 4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완료된 곳은 회현초교와 신시초교이며 등교교는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신청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지곡초, 서해초, 미장초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인성 개선 등을 위해 노후된 안전펜스 교체 및 보행로 신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 및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불법광고물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군산시는 4월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유동 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에게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인 1만 원, 1개 월 2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기준별 군산시립상품권을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제거 보상금으로 적 3,541건, 전단지 6,224건을 제거해 9,765만 원의 보상금으로 지난해에는 적 6,423건, 전단지 13,753건을 제거해 1억 881만 원의 보상금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위험을 해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